

# 3월 6일 전국대의원대회

## 민영KT원년, 노동조합의 나아갈 길 제시할 것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대의원대회가 지리산수련원에서 열린다.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의 한해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 중 하나이다. 또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의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사측과의 협상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원이다.

올해 대의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민영KT 원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의원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한국통신노동조합의 위상 및 존립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참가하는 대의원은 자신이 갖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이다.

첫째, 대의원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조직력이 약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각 대의원들의 조합간부라는 인식이 결여된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대의원이 조합원의 고통을 노

동조합에 일리고 노동조합의 결정과 제안을 조합원에게 교육 및 전달해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단지 대의원대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거수기로서의 대의원은 지양해야 할 모습이다. 그 동안 대의원은 대의원대회의 참여만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의원 스스로가 조합간부로서 위상을 가지고 현장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노동조합의 위상은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셋째, 자주적인 대의원이 돼야 한다. 사측의 탄압에 굴하거나 주위의 감언이설에 넘어간다면 그는 대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대의원이 돼야 한다.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는 이러한 대의원들의 결의의 장이 돼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이끄는 동력으로서 토론은 치열하게 결정된 사안은 신속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석부위원장 - 김혜관

먼저 조직개편저지투쟁에서 보여주었던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와 투쟁에 감사 드립니다. 한국통신노동조합 8대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모범조합간부상을 정립하고, 기본부터 지키는 조합간부가 되기 위해 일대 해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동조합과 조합간부에 대한 일반 조합원의 시선이 굵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조합사업과 조합간부의 활동이 투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활동이 상당부분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8대 집행부가 향후 한국통신노동조합의 모범을 창출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조합원 동지여러분께 단순히 참여해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참여를 요구하기 전에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생산해 조합원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지지를 유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수순이고 조합원 여러분에게 당당해질 수 있는 노동조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적과의 싸움은 쉽습니다. 집행부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비판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부위원장 - 정홍근

노동으로 시작되는 노동자란 이름은 개인의 명예로운 가치 속에서 당당한 자신의 삶을 영위 시켜주며 더불어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료에게서 서로를 어울리게 하는 존경과 올바른 모습으로 세상 삶의 척도이기도 하며 틀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확립화로 흔들리는 경제 만능주의의 세상속에서 신자유주의의 인력감축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속에 진행했던 사측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은 우리 생존권의 박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아니 조합원으로서 우리 38,000여 조합원 동지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 문제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에 중앙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집 그리고 전국 지방본부 및 지부장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 일당 저지에 냈습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 홀로 흔들리기 보다는 우리 모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나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넉넉한 위치는 자신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만들어 집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복지, 임금, 생존권 등 일터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의 항상 동지들과 함께 동지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위원장으로 남겠습니다.



## 조직개편저지투쟁 상황일지

- ◇ 2003. 1.21 고용안정위원회 개최해 일방적 조직개편 추진 강력항의.
- ◇ 2003. 1.22 전국지방본부 위원장 및 조직국장 긴급 회의,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중앙본부 상집간부 철야 농성.
- ◇ 2003. 1.23 사측은 경영설명회를 통해 조직개편 내용 전달(지방본부 및 지부 폐지내용), 노동조합 반대 입장 표명.
- ◇ 2003. 1.23 ~ 24 전국 지부장,분회장 본사 상경투쟁 및 조직개편저지투쟁 결의대회 개최.
- ◇ 2003. 1.24 사측에서 수정안 제시(지역본부, 지사 유지시키고 소속은 변경), 노동조합은 수용 불가 입장 표명.
- ◇ 2003. 1.27 전국지방본부 위원장 회의에서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기로 결정.
- ◇ 2003. 1.27 사측, 2차 수정안 제시(지역본부 이하 하부조직은 현행유지), 노동조합은 사장 부재 상태, 구두 보고 등 신빙성이 없어 임시대의원대회 강행키로.
- ◇ 2003. 1.28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발생결의 -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 ◇ 2003. 2.5 사측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 조직개편 발표.
- ◇ 2003. 2.5 쟁의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노동조합 요구 관철에 따라 쟁대위 해산결정.

## 2003년 효도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계획

월	효도휴가비	성 과 급
1월	100%	
2월		50%
4월		경영성과급(0~150%)
6월		100%
8월		100%
9월	100%	
11월		100%
계	200%	350% + (0~150%)

지급계획: 1) 효도휴가비: 급식통근비 계좌  
2) 성과급: 급여계좌

\* 경영성과급은 사장 경영성적에 따라 지급을 결정  
2003년도 차등지급율은 노·사간 별도 협의로 추후결정

## 가족과 함께 .....

# 인체의 신비함을 다녀오세요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하면서 회의, 농성 등으로 늦은 귀가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 같아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우연히 신문을 통해 실제 진짜 사람의 신체가 해부되어 있는 전시회가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 교육에 좋겠다는 생각과 가족들에게 그 동안 잃은 점수를 만회해보자는 생각에 전시회를 갈 것을 제안했다.

전시회 관람을 마치고 나서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교양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인간의 신체 구조 모두가 각 부분별로 완벽하게 표현화되어 있어 인체의 복잡하고도 완벽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의 중요성, 해부학의 위대함, 그리고 자신의 몸을 통해 인간의 아름다움, 과학의 신비를 제공한 신체 기증자들의 숭고함 등 한마디로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었다.

전시회가 얼마남지 않아 아쉽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가 되기 위해 반드시 추천하고픈 생각에 잠시 안내를 드립니다.

- **관람일정:** 2003년 3월 2일까지
- **관람장소:** 서울 과학관 (서울대 병원 영안실 건너편, 창경궁 옆)
- **교통편:** 주차공간 협소(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출구에서 성균관대 입구 사거리, 좌측 창경궁 방향/도보 5분)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9시 (마지막 입장시간은 오후 8시)
- **관람료:** 성인 10,000원, 중고생 6,000원, 초등생 5,000원

참고로 이 전시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00만명이 관람하였고, 한국 순회전은 현재까지 140여 만명이 관람하였다고 합니다.

조규상 <중앙본부 선전국장>



사무처장 - 양정우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사무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사측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의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섭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처장으로서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교섭, 투명한 교섭, 정책과 조직이 수반되는 교섭이 되도록 하고 교섭도중이나 합의 후 현장 여건을 철저히 검증하고 분석해 현업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괴리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종업계의 복지제도와 임금현황 분석을 통해 민영화 이후 복지제도 후퇴나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내복지기금 활성화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합원들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되돌아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조합중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며 조합운용의 존폐가 걸려있는 전일자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자립기금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예산을 운용 토록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 안창식



올해의 화두로 "변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적 변화는 물론 노동환경을 비롯한 우리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통신노동조합에서는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8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기조로 삼아 향후 노동조합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정책기획실에서는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면서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구함은 물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정책에 대비한 장단기 정책과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정책력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노동조합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책 노조'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을 운용 토록하겠습니다.



조직처장 - 류준웅

안녕하십니까? 조직처장 류준웅입니다. 당당한 노동조합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등한 노사관계도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담당할 수 있고, 사측의 공세에 맞설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처는 우리의 힘을 강화하고, 때로는 부당한 사측 행위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고 책임을 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직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최선전 조직인 지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부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지부장과 부서장들이 움직일 때 노동조합 조직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지부 조직활성화에 최우선적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적인 조직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현재 우리 조직의 약점이 무엇인가? 강화 방안이 무엇인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조직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영 KT는 과거의 공기업과 달리 노동조합에 대한 공세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조직강화를 일상적으로 준비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투쟁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정신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조직을 하겠습니다. 투쟁!!

교육선전실장 - 강세홍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본부 교육선전실장 강세홍입니다. 집행부가 출범한지 1달만이 지나가 있는 이시점에 회사의 조직개편을 저지하고 8대 집행부는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더 험난하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조합의 현실에 교육선전실장으로서 어깨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조직개편저지는 조합간부들에게 단결의 기회였으며, 조합원들에게는 노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변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대 집행부의 탄생도 그러한 변화의 요구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노사관계도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민영KT에 있어서 노사간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파국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민영KT 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만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민영KT의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조합원의 단결과 조합간부들의 단결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되새기면서 조합원들의 열렬한 고용안정 쟁취를 위하여 노동조합 간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